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7. No. 3, September 2014, pp.42~59.*
Copyright©2014,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숙천제아도(宿踐諸衙圖)’를 통해 본 조선시대 중앙관아의 공간구조와 조경기법

신상섭[a] · 김현욱[a] · 박영관[b]

[a]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 [b]우석대학교 대학원

국/문/초/록

조선시대 후기 고위관료였던 한필교(1807~1878)의 화첩 『숙천제아도(宿踐諸衙圖)』를 통해본 중앙관아의 공간구조와 조경기법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방전도묘법(四方顚倒描法)’으로 그려진 『숙천제아도』는 조선시대 중앙 및 지방관아의 공간구조와 문화경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독보적 실증사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조선의 정궁(경복궁) 광화문 밖 육조(六曹)거리에 자리 잡은 중앙관아는 장방형 부지에 중심시설(당상대청)과 부속 건물이 서열에 따라 상 · 하 또는 좌 · 우로 분산되는 구조인데, 주 건물은 남향으로 배치되었으며, 행정편의와 환경성, 그리고 유교적 규범성의 실천 등 위계적 토지이용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관리들의 직무공간인 당상대청과 향청 등 주요건물은 너른 네모꼴 앞마당을 두어 실용성 위주의 중정(中庭)을 구축하였고, 중심건물(당상대청)은 연못과 정자 등 의미경관을 반영한 후원을 가꾸었다. 특히, 토지이용에 있어서 적극적 공간과 소극적 공간이 교차 반복〈동(動)과 정(靜), 채(棟)와 마당(庭), 정(庭)과 원(園)〉되는 중용적 사유체계를 보여준다. 중앙관아조경의 특징은 실용적 성격의 앞마당과 경관적 측면이 강조된 뒤뜰을 연계시킨 외부공간의 확장성(前庭+棟+後園), 그리고 환경쾌적성, 경관성, 상징성, 방화용수 목적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수경시설(方池)의 도입을 들 수 있다. 또한 휴양과 심신수양을 도모하기 위한 정자의 도입 및 후원의 발달, 정심수(庭心樹 : 연, 버드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등)로서의 의미부여와 제한적인 식물도입, 그리고 심미성, 관념성, 실용적 가치 등을 중시한 환경설계기법이 추출된다. 이러한 중앙관아의 조경기법은 우리나라 궁궐, 사찰, 서원, 상류주택 등 전통공간에서 유사하게 추출되는 보편성이자 특수성이라 하겠다.

주제어 『숙천제아도(宿踐諸衙圖)』, 공간구조, 중앙관아, 조경기법, 의미경관, 환경설계

투고일자 : 2014. 02. 25 I 심사일자 : 2014. 04. 16 I 게재확정일자 : 2014. 08. 02

서론

조선시대 관료들은 족보나 문집, 화첩 같은 가승을 통해 자신의 관직이력 또는 집안의 위상을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자신과 집안의 위상을 세우는 기록물에는 그림과 같은 시각자료가 한몫을 하였는데, 한필교(韓弼教, 1807~1878)의 『숙천제아도[01]』 화첩은 이러한 경향을 대변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전통문화공간을 연구하는데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실증성 여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관련 사료가 많지 않다는 점이며, 조경 영역의 경우 관련 기문과 그림 등은 더욱 희소한 실정이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조선시대 관아의 경관을 세밀하게 묘사한 『숙천제아도』 화첩이 발굴되었고, 2012년에는 연구, 번역 성과가 하버드옌칭도서관 학술총서로 출간되었다.

한필교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였지만 화공을 시켜 자신의 사환(仕宦) 이력을 화첩으로 제본한 『숙천제아도, 미국 하버드대학 옌칭도서관 희귀본실 소장』는 중앙관아와 고을 읍치의 토지이용 및 조경기법 등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화 성격이라는 점에서 희귀한 사례이다. 이러한 발굴 및 저술 성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숙천제아도』 사료(관아 및 읍치도 15매, 40× 60cm 크기)를 분석하여 중앙관아의 공간구조와 조경기법 등 환경설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구명코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두고자 한다.

조선시대 관아(官衙)는 도읍의 중앙관아와 지방의 지방관아로 대별된다. 연구 주제가 되는 중앙관아의 경우 육조(六曹 :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체제이며, 태종 때에는 회계와 병권, 문무관의 인사권 등 주요정책 결정 기관으로서 위상을 갖게 되었다. 조선시대 육조관련 최초의 기록은 태조실록(태조 4년 9월 29일조) 내용[02]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까지 관아 관련 연구는 건축, 조경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중앙관아 대상 중점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건축분야에서는 주남철(1984, 관아 건축특성)과 김종영(1989, 관아 건축특성)이 지방관아를 포괄하는 부분적 연구가 있을 뿐이다. 조경분야에서는 이은창(1984, 관아원림)과 전순옥(1991, 관영원림)이 지방관아에 딸린 누정, 김용기외 2인(1999)이 경기감영 등 지방감영의 입지와 공간구성, 그리고 황상돈과 박찬용(1999)이 지방관아 정원유형과 경관특성에 관한 기초 연구 성과가 있다. 다만, 중앙관아의 경우 이선(2006)이 저술한 『한국전통조경식재』에 식재법이 간략히 소개된 성과가 있을 뿐이다.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된 『숙천제아도』는 조경요소가 세밀하면서도 실증적으로 표현된 제2도 제용감, 제3도 호조, 제6도 사복시, 제10도 선혜청, 제14도 도총부, 제15도 공조 등의 중앙관아가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제5도 영유현, 제7도 재령군, 제8도 서흥부, 제9도 장성부, 제12도 김포군, 제13도 신천현 등 지방읍치, 그리고 연구 주제와 성격이 다른 제1도 목릉, 제4도 종묘서, 제11도 종친부 등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연구의 진행은 『숙천제아도』 사료를 근거로 중앙관아(제용감, 호조, 사복시, 선혜청, 도총부, 공조 등) 6개소의 공간배치, 도입시설과 조경요소 등을 분석하여 중앙관아조경과 연계된 문화경관의 특징을 고찰한 후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택하였다.

---

01 "평생 거쳐 온 여러 관아의 그림들"이라는 뜻을 갖는 『숙천제아도』는 조선 후기 문신 한필교(1807~1878)가 42년간 부임했던 중앙과 지방관아의 모습과 위치, 그리고 고을의 길과 산, 주택 등 문화경관을 세밀하게 표현한 화첩이다. 1837년 목릉참봉으로 부터 1878년 공조참판으로 생을 마칠 때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였고, 관아 명칭과 위치, 관직이 내려진 날짜 등이 적혀있다. 중앙관서일 경우 맡은 업무를 기록하였고 지방 관아는 한양과의 거리를 밝혔다. 15점의 그림으로 제본된 원본은 하버드대학 옌칭도서관 희귀본실에 소장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복사본이 있다.

02 궁성을 쌓고 동문은 건춘문(建春門), 서문은 영추문(迎秋門), 남문은 광화문(光化門)이라 했는데, 다락[樓] 3간이 상 · 하층에 있고, 다락 위에 종과 북을 달아서, 새벽과 저녁을 알리게 하고 중엄(中嚴)을 경계했으며, 문 남쪽 좌우에는 의정부(議政府) · 삼군부(三軍府) · 육조(六曹) · 사헌부(司憲府) 등의 각사(各司) 공청이 벌여 있다.

조선시대의 중앙관아, 그리고 '숙천제아도' 화첩

1. 조선시대의 중앙관아

우리나라 통치행정제도에서 관아의 유형은 중앙관아와 지방관아로 대별된다. 중앙관아의 경우 고려 초에는 6관〈선관(選官), 민관(民官), 병관(兵官), 형관(刑官), 예관(禮官), 공관(工官)〉으로 운용되었고, 성종 때에 육부(六部)로 개편되었으며, 공양왕 때에 육조(六曹 :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체제가 되었다. 고려의 제도를 계승한 조선시대에는 태종 때 독립기관으로 승격되어 회계권과 병권, 문무관의 인사권 등 주요정책 결정 기관으로서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무와 관직을 분류하는 6분법(六分法)은 조선시대 중앙관제의 6조는 물론 지방의 6방제(六房制) 편제 등으로 활용되었다.

조선시대 육조가 자리하던 육조대로는 광화문 앞에서 사거리까지 이르는 광화문전로인데, 경복궁이 준공되던 1395년에 조성되었다. 광화문전로를 기준으로 동쪽에는 의정부, 이조, 한성부, 호조가 자리 잡았고, 서쪽에는 예조, 중추부, 사헌부, 병조, 형조, 공조, 사역원이 자리하였다(http://ko.wikipedia.org). 배치서열에 따른 육조의 주요 관장업무는 〈표 1〉과 같다.

'육조'는 1395년 『태조실록(태조4년 9월 29일)』에 처음 명칭이 나타나는데, 『인조실록(인조 22년 9월 24일)』과 『승정원일기(영조 40년)[03]』 등에도 '육조대로(六曹大路)'와 '육조'의 명칭이 추적된다. 육조의 순서는 세종 때 정하였는데, 첫째 서열 천관(天官)은 이조, 둘째 지관(地官)은 호조, 셋째 춘관(春官)은 예조, 넷째 하관(夏官)은 병조, 다섯째 추관(秋官)은 형조, 여섯째 동관(冬官)은 공조로 하였다(주남철, 2009: 183).

【 표 1 】 광화문 앞 육조대로 동서쪽 중앙관아의 배치 서열과 주요 업무

광화문 중심 동쪽	
의정부(義政府)	제반 정사 총괄, 벼슬아치 감독
이조(吏曹)	벼슬아치 선발, 임명, 평가
한성부(韓城府)	한양 인구, 주택, 토지, 도로, 교량, 산천, 치안 관리
호조(戶曹)	국가의 인구, 토지, 조세, 공납, 재정 관리
기로소(耆老所)	은퇴 당상관 친목 우대
광화문 중심 서쪽	
예조(禮曹)	국가의 의례, 과거, 외교, 사신 접대 등
중추부(中樞府)	현직 당상관 친목, 우대
사헌부(司憲府)	벼슬아치 능력, 수완, 비행 조사, 감독
병조(兵曹)	무관의 선발, 배치, 군무, 궁궐수비 등 총괄
형조(形曹)	통치질서 유지를 위한 각종 법률, 형벌 지휘
공조(工曹)	산림, 하천, 호수, 각종 토목공사, 수공업 관장

중앙관아의 의정부를 비롯하여 6조의 각 건물들은 오늘날 남아있는 것이 없다. 다만, 『동국여지승람』, 『태조실록』, 『수선전도』 등에 의하면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 동편 첫 머리에 의정부가 있었고 중추원은 광화문 밖 서편 예조 다음

【 그림 1 】 경도5부 『북한산성부도(1731년경, 규장각 소장)』 한양성, 경복궁, 육조관아, 주요시설과 동선 체계

03 방어사는 종2품의 아문이므로 육조(六曹)와는 통관(通關, 관문으로 통래)으로 하되 병조는 본시 본병아문(本兵衙門, 군사를 총괄)이므로 서목(書目)을 갖추어 첩정(牒呈)한다.

【 그림 2 】18세기 육조거리복원도(출처 : (주)엔포디)

에 있었다. 또 육조관아는 광화문 밖 동편과 서편에 좌우로 늘어서 있었는데, 동쪽에 이조와 호조, 서쪽에 예조, 병조, 형조, 공조가 자리 했다(그림 1, 2, 3, 4 참조).

즉, 육조대로에 좌우로 늘어선 중앙 관아의 토지이용과 공간구조는 주사(主舍)를 중앙에 두고, 주위에 부속사를 장방형으로 둘러 건축함으로서 조선시대 양반주택의 몸채와 행랑채 배치와 비슷한 평면을 이루고 있다(주남철, 1985: 30~31).

한편, 『태조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제3권)』, 『삼봉집(제1권, 進新都八景詩)』과 『양촌집(제8권)』등에 의하면 태조7년(1398)[04]에 제영된 정도전(1342~1398)의 신도8경(新都八景)은 광화문 밖 중앙관아가 늘어선 풍경을 제3경으로 노래하고 있다. 즉, 제3경은 북두칠성을 둘러싼 별과 같다 하여 '열서성공'으로 불렸다. 신도팔경[05]에 열서성공 차운시[06]를 남긴 인물로 권근(1352~1309)을 들 수 있으며, 육조와 관련하여 이덕무(1741~1793)의 문집 『청장관전서』에 성시전도(城市全圖) 칠언고시[07]가 수록되어 있다.

【 그림 3 】『한양도』: 위백규, 환영지(1770년) 도성의 전각, 물줄기, 경복궁 앞 육조 등

【 그림 4 】육조관아 훼손 직전 1920년대 풍경,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04 태조께서 좌정승 조준(趙浚)과 우정승 김사형(金士衡)에게 신도팔경(新都八景)의 병풍 한 면씩을 주었다. 봉화백(奉化伯) 정도전이 팔경시를 지어 바쳤는데, 첫째는 기전(畿甸)의 산하(山河)였다.

05 1경 기전산하(畿甸山河), 2경 도성궁원(都城宮苑), 3경 열서성공(列署星拱), 4경 제방기포(諸坊棋布), 5경 동문교장(東門敎場), 6경 서강조박(西江漕泊), 7경 남도행인(南渡行人), 8경 북교목마(北郊牧馬).

06 활줄 같은 곧고 긴 거리 넓기도 한데 弦直長街闊 / 별처럼 여러 관아 나눠져 있네 星環列署分 / 천문에 구름같이 모여든 관개 天門冠盖藹如雲 / 훌륭한 선비들 밝은 임금 보좌 하네 濟濟佐明君 〈후략〉.

07 육조와 백사는 여러 관원 거느리고 六曹百司領大小 / 팔문과 사교는 멀고 가까운 곳 통하네 八門四郊通遐邇 / 팔만여 민가는 오부가 통할하고 八萬餘家統五部 / 사십구방은 세 저자를 끼고 있네 四十九坊控三市 / 빙 둘러 돌로 쌓은 성 금구 같으니 週遭石城似金甌 / 이것이 왕경의 대략이로다 此是王京大略耳 〈후략〉

2. 사환 이력을 기록한 화첩 『숙천제아도』

조선후기의 문신 한필교는 1807년 한양에서 태어나 1878년(고종15년) 공조참판에 재임하던 중 한양의 자택에서 72세로 졸(卒)한 인물이다. 관련 저작으로 『숙천제아도(1840)』를 비롯하여 청나라 기행문인 『수사록(1831)』, 『청주한씨세보(1866)』, 아들 한장석(1832~1894)이 편찬한 『하석유고(霞石遺稿)』등이 있다.

『숙천제아도』의 편집체계는 서문을 포함하여 제1도 목릉, 제2도 제용감, 제3도 호조, 제4도 종묘서, 제5도 영유현, 제6도 사복시, 제7도 재령군, 제8도 서흥부, 제9도 장성부, 제10도 선혜청, 제11도 종친부, 제12도 김포군, 제13도 신천군, 제14도 도총부, 제15도 공조 관아도로 구성되어 있다. 1곳의 관아를 2면에 걸쳐 그렸는데, "평생을 거쳐 온 여러 관아의 그림"이라는 뜻을 갖는 『숙천제아도』는 중앙관아를 비롯하여 지방관아를 둘러 싼 주변 환경(길과 산), 그리고 건물 명칭과 조경요소 등이 완성도 높게 표현되어 있다.

한필교는 『숙천제아도』서문에서 "그림은 사물을 본뜬 것이니 하늘에 덮여 있는 것과 땅에 실려 있는 것 가운데 그 오묘함을 전할 수 없는 것이 없다. 〈중략〉 후세인으로 하여금 옛 제도와 방불한지 고찰하거나, 나의 진퇴 출처를 논하기에 넉넉할 것이다. 〈중략〉 후세에 전하는 보물이 될 만하다"라고 적었다(허경진, 김선주, 2012: 13~14, 『숙천제아도』). 즉, 경화세족 출신 한필교의 안목과 예언처럼 『숙천제아도』는 단순한 사료적 가치를 뛰어넘어 19세기 독창성을 갖는 문화유산 보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하겠다.

한필교가 속한 청주한씨 계보는 조선후기 최상위 양반층으로 정치적, 사회적 특권을 세습하던 가문이었다. 증조인 한용구(1747~1828)는 영의정에 올랐고,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던 홍석주(1774~1842, 좌의정)의 사위였으며, 아들 한장석은 이조판서와 대제학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문의 위상을 바탕으로 제작된 『숙천제아도』는 동시대 경화세족 관원들에게 유행하던 '관청계회도' 같은 제작 관행을 뛰어 넘는 기록화로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필교가 31세 때 목릉 참봉으로 관직에 처음 나아가 72세 때 공조참판에 이르는 42년간의 관직이력과 『숙천제아도』의 연계성을 정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 표 2 】 한필교의 관직이력과 『숙천제아도』 연계성(허경진, 김선주, 2012, 7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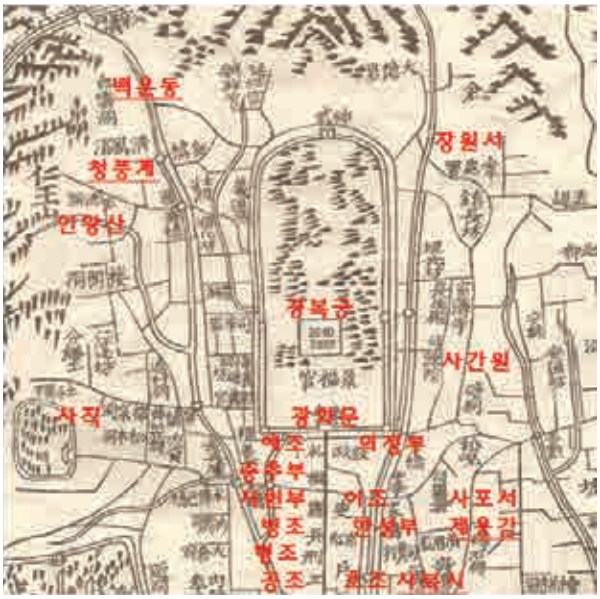
나이	년도	관 직	『숙천제아도』	비 고(위 치)
31	1837	목릉 참봉	제1도 목릉	구리 동구릉(선조와 왕후 능)
32	1838	제용감 부봉사	제2도 제용감	중부수진방, 현 종로구청
33	183	호조 좌랑	제3도 호조	중부징청방, 현 전기통신공사
33	1839	종묘서 서령	제4도 종묘서	종묘
34	1840	영유현 현령	제5도 영유현	평안도
37	1843	사복시 판관	제6도 사복시	중부수진방, 현 수송동 이마, 대림빌딩
39	1845	재령군 군수	제7도 재령군	황해도
43	1849	서흥부 부사	제8도 서흥부	황해도
50	1856	장성부 부사	제9도 장성부	전라도
55	1861	선혜청 낭청	제10도 선혜청	남부훈도방, 현 남창동 남대문시장
59	1865	종친부 전부	제11도 종친부	북부관광방, 현 경복궁 동편 기무사터
61	1867	김포군 군수	제12도 김포군	경기도
61	1867	신천군 군수	제13도 신천군	황해도
72	1878	도총부 부총관	제14도 도총부	창덕궁 선인문안
72	1878	공조 참판	제15도 공조	광화문 육조거리, 현 세종문화회관

연구결과 및 고찰

1. 제용감의 공간구조와 조경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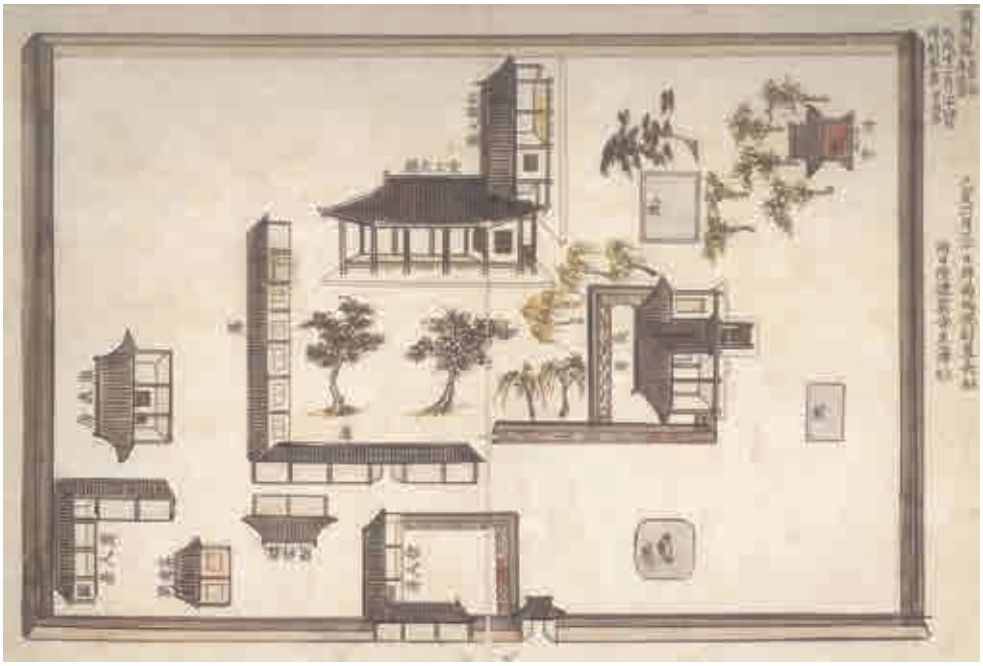
호조의 산하기관인 제용감은 왕실에서 쓰는 모시, 마포, 인삼 등의 진상, 그리고 임금이 하사하는 의복, 능단(綾緞) 등의 제작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경복궁 앞 호조와 가까운 중부수진방에 있었던 제용감과 관련하여 유득공(1749~1807)은 『경도잡지(京都雜志)』 제1권 서화편에 "제용감에서 제작한 '모란대병(牧丹大屛)'은 궁중의 공식적인 잔치(公燕)에 사용되었고, 사족(士族)들이 혼례 때 빌려 쓰기도 한다"라고 기록하였다.

제용감은 호조의 북동쪽 지근거리(현 종로구청 자리)에 있었다(그림5 참조). 공간구성체계는 담장을 두른 장방형 대지에 당상관이 근무하는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이 'ㄱ'자 형태로 연결되었는데, 남향과 동향으로 좌향을 달리하여 영역을 분리했다. 서리들이 근무하는 장방(長房)은 'T'자 형태로 별도의 담장을 둘렀고, 정문을 끼고 역인방이 별채를 형성하며 부속채인 고직방(庫直房)과 공인방, 다모간(茶母間) 등이 남서쪽에 배치되었다. 낭청 정면에 신당(神堂)이 자리하였는데, 관원들의 결속과 관아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당역할을 했다.



【 그림 5 】『숙천제아도』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수선전도(1840년대)』상의 육조와 제용감, 사복시, 사간원, 사포서 등 중앙관아 위치

제용감은 실용성과 경관적 측면을 고려한 조경기법을 엿볼 수 있다. 즉, 왕실에서 쓰는 직물과 식품 등을 관장하는 기



【 그림 6 】『숙천제아도』 제2도 제용감(1839년), 하버드대 옌칭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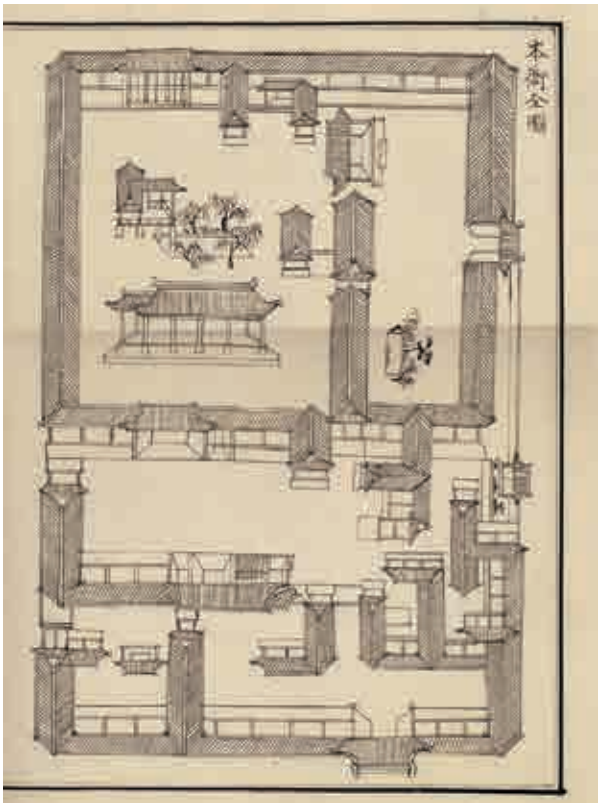
관으로서 너른 마당(庭)의 필요성이 고려되었고, 관원들의 직무시설(당상과 낭청, 그리고 장방)을 중심으로 뜰(園)이 경영되었다. 특히, 경역 내에는 네모꼴 못(方池)이 3개소가 조성되었는데, 방지원도형(方池圓島形) 연못도 가꾸어졌다. 이렇게 못이 여러 개 조성된 경우는 특이한 사례인데, 풍수적 화기비보와 방화용수로의 실용성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경관적 고려는 물론 우주의 운행원리와 질서체계를 대입시킨 표현으로 해석된다(그림 6참조). 정원 관련 옛 기록을 살펴보면 '천지조산 종화초(穿池造山 種花草)' 등으로 기술된 사례를 볼 수 있는데, 경관조성에서 물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윤국병, 1985: 328)이며, 실용성과 환경쾌적성, 의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설계기법이라 하겠다.

한편, 제한적인 교목 중심의 조경 식재가 이루어졌는데, 당상과 낭청을 중심으로 뜰이 가꾸어졌다. 즉, 당상 앞마당에는 느티나무 또는 회화나무로 판단되는 괴목(槐木) 2그루가 대식(對植)되어 있고, 버드나무가 장방(長房)의 담장을 면해 위요 식재되어 있다. 낭청 정면 앞마당은 네모진 연못을 중심으로 소나무와 군식된 수목이 배경을 이루는 양상이다.

즉, 제용감의 조경은 ① 상징성과 실용적 가치를 연계시킨 3개소의 네모꼴 못, ② 실용성과 유교적 규범 등을 대입시킨 낙엽교목 중심의 절제된 식재기법, ③ 공간적 위계를 반영한 뜰과 마당의 경영, 즉 앞뜰(前園)과 뒷마당(後庭)이 결합된 공간 영역의 확장성 등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2. 호조의 공간구조와 조경기법

호조(戶曹)는 육조의 2번째 서열로 호구(戶口)·공물(貢物)·부역(賦役)·전량(錢糧)·식화(食貨)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는데, 육조거리의 동편 중부징청방(현 서울 전기통신공사 본사)에 위치했다. 호조는 『탁지지(度支志, 1788년)』에 수록된 '본아전도'를 통해 이미 공간구조 등이 알려졌는데, 『숙천제아도』 내용과 일치하여 건축 및 조경 등 토지이용 전반을 비교,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그림 7, 8참조). 특히, 건물의 배치와 칸수, 각 영역의 공간 비례, 지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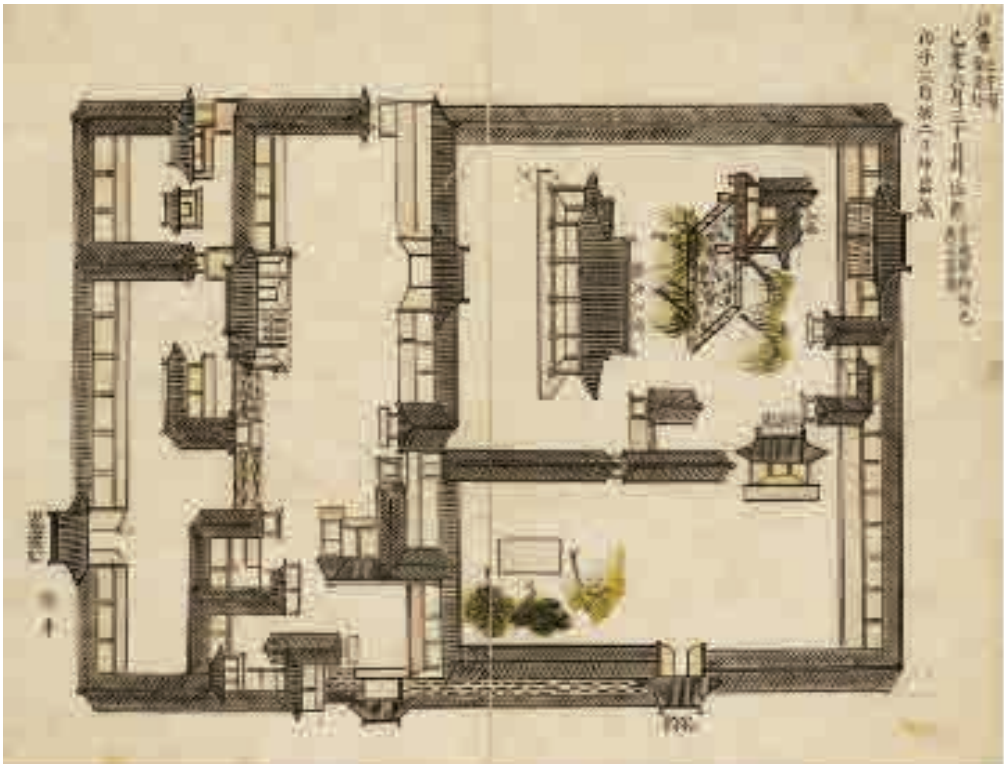


【 그림 7 】 '본아전도(1788년)' 탁지부(호조), 규장각 소장

꺾인 곳의 묘사 등이 거의 일치한다(박정혜, 2012: 106).

호조의 공간구조는 육조거리에 면하여 행랑으로 둘러싸인 산원(算員)들의 집무 공간이 전면에 자리하고, 후면에 당상관과 낭관이 집무하는 청사가 자리 잡았으며, 행랑들이 둘러싸고 있다(주남철, 2009: 183). 전체적으로 장방형 부지에 행랑과 연계된 담장을 두르고 지부아문(地部衙門, 육조의 두 번째 서열)과 탁지남문(度支南門, 정문) 등 2곳의 출입문을 두었다.

지부아문을 들어서면 산원들의 집무처가 자리하고, 내문을 통과하면 당상대청에 이르며, 뒤쪽으로 '丁'자형 연정(蓮亭)과 버드나무가 늘어선 방지(方池)가 꾸며져 있다. 낭청대청은 당상영역과 인접해 있으면서 남문을 통해 진입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이다. 건물의 공간규모로 볼 때 당상청은 12칸으로 사면에 툇간이 있고, 좌우에 아방(兒房)을 4칸씩 두었으며, 4칸 낭청과 3칸 입직방, 우방(右房) 2칸, 다주(茶廚) 1칸, 마구간 1칸, 고사(庫舍) 125칸이 방형으



【 그림 8 】 50년 전에 그려진 '본아전도' 평면과 동일한 『숙천제아도』 제3도 호조(1839년), 하버드대 옌칭도서관 소장

로 둘러싸고 있다(http://encykorea.aks.ac.kr/Contents).

토지이용을 보면 위계가 높은 동쪽 편에 정2품의 판서가 관장하는 청사(당상청과 낭청)를 두고 영역을 달리한 너른 마당에 연못을 가꾸었는데, 버드나무와 정자 등을 도입했다. 서쪽에 별도의 판적사고 52칸, 판별고 44칸, 세폐고 9칸, 잡물고 9칸, 별례방고 7칸, 은색고 4칸 등이 너른 마당을 끼고 자리한다. 보관기능을 갖는 이 건물군의 외부공간은 특별한 조경 수식 없이 너른 마당을 두었다. 한편, 탁지남문 안 서쪽의 버드나무 등이 어우러진 네모꼴 못은 방화용수가 주목적임을 알 수 있다. 당상대청 후원의 네모꼴 못에는 연을 가꾸었는데, 버드나무를 주 수종으로 연정(蓮亭)을 도입하여 휴식과 열락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호조의 조경기법은 ① 지부아문 입구에 우물이 자리하고, ② 2개의 네모꼴 연못은 각각 경관성과 실용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③ 버드나무 등 낙엽교목 중심의 한정된 수종 선정이 이루어졌고, ④ 위계를 반영하여 중심 청사의 경우 전정과 후원을 가꾸는 등 외부공간의 확장성을 들 수 있으며, ⑤ 판적사고와 판별고 같은 보관시설은 너른 앞마당 중심의 실용적 성격이 강하게 표출된다.

3. 사복시의 공간구조와 조경기법

사복시(司僕寺)는 병조 소속으로 왕이 타는 말, 수레 및 마구와 목축 등에 관한 일을 담당했다. 내사복시는 경복궁의 영추문(迎秋門) 안쪽과 창경궁 홍문관 남쪽 중부수진방에 있었으며, 외사복시는 종로구 수송동 현재의 종로소방소와 종로구청 부지에 해당되는데, 조선개국공신 정도전(鄭道傳)의 집터였다.

사복시는 장방형 부지에 담장을 두르고 그 안에 이중으로 동고, 서고, 남고 등의 말 관련 건물을 둔 공간구획이 특징인데, 통풍과 같은 환경조건은 물론 탈출방지 등 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태복시(太僕寺, 사복시와 태

복시로 번갈아 개칭)라는 현판이 걸린 남문을 들어서면 기단 위에 정면 7칸의 정청(閱淸軒)이 있고, 정청 뒤편에는 돌담으로 후원이 구획되어 있는데 커다란 방지(方池)가 조성되어 있다. 정청 좌우에 마부들이 머무는 거달청, 말의 질병을 치료하던 마의청, 어마를 담당하던 어마청, 사료로 쓰는 콩을 관리하는 추두간 등 부속건물이 있다. 한편, 말과 소의 젖을 관리하던 타락변, 여(輿), 연(輦), 안장 등을 관리하던 덕응방, 그리고 신당이 남쪽 마구간의 바깥쪽 공간에 독립되어 있다. 특히, 정청의 앞마당에는 말이 원형으로 대열을 이루며 훈련 중인 모습을 보여준다(그림 9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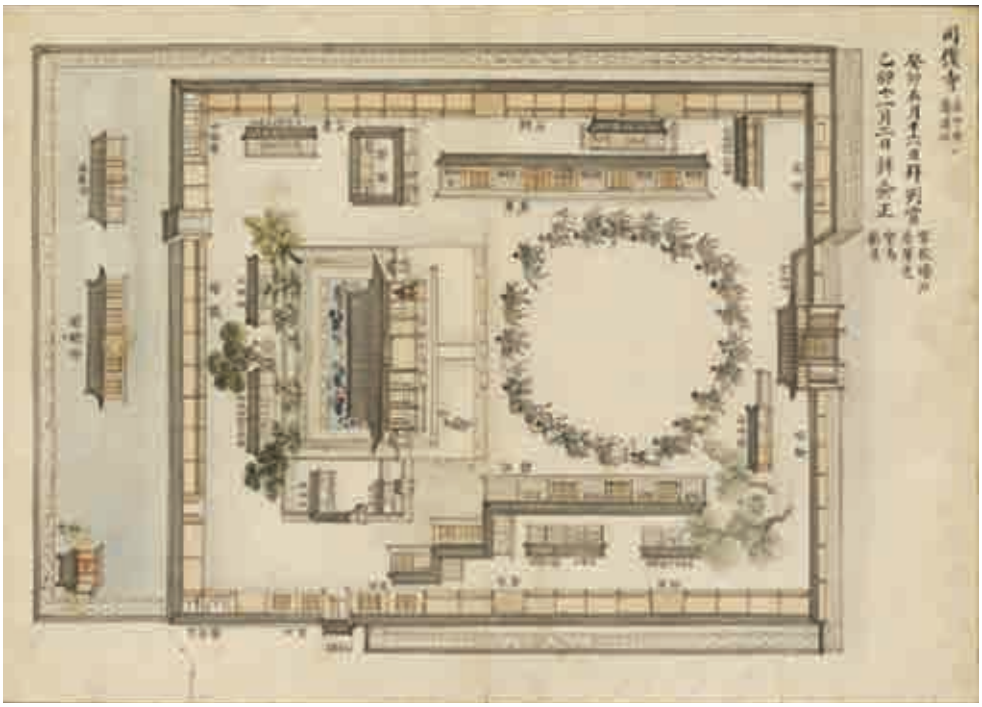
사복시는 신당과 신모청이 사선부감에 의해 묘사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사방전도법으로 그려졌다. 개개의 건물에는 입체적인 실내 공간의 투시가 시도되어 전체적으로 통일된 화면 감각(박정혜, 2012: 109)을 보여주는데, 이 그림은 하버드대 옌칭도서관 2000년 크리스마스카드 표지화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사복시 제조(정3품 관직)가 근무하는 정청(열청헌)은 2단으로 처리된 높은 기단을 두었다. 앞마당은 너른 네모꼴 마당을 두어 말의 조련을 행하였고, 담장을 두른 후원은 연못, 그리고 버드나무와 화목을 도입한 화계가 가꾸어 졌다. 사복시는 말의 분변 냄새와 조련하는 시끄러운 소음 등으로 관원들의 기피부서였다고 하는데, 열악한 환경조건을 보완하려는 조경기법이 표출된다. 한편, 남청 정면에 거목(巨木)과 함께 우물이 자리하고, 신모청(新募廳)의 버드나무 숲 속에도 커다란 우물이 자리하는데, 이는 그늘에서 말에게 물을 먹여야 하는 필요성으로 판단된다.

즉, 사복시의 조경기법은 ① 정청의 후원은 연못, 그리고 버드나무와 화목이 어우러진 화계를 가꾸어 환경개선 목적임을 유추할 수 있고, ② 정청의 너른 앞마당은 말의 조련 등 실용적 성격이 강하며, ③ 말에게 그늘을 주기위한 버드나무 숲, 그리고 물을 먹여야 하는 우물의 도입 등이 특징으로 표출된다.

4. 선혜청의 공간구조와 조경기법

선혜청(宣惠廳)은 대동미와 포·전의 출납을 맡아보던 기



【 그림 9 】『숙천제아도』 제6도 사복시(1843년), 하버드대 옌칭도서관 소장

관인데, 1608년 광해군에 의해 대동법이 실시될 때 설치된 '선혜지법(宣惠之法)'에서 연원한다. 그러나 1894년 갑오개혁 때 조세제도가 지세제로 통일됨으로써 대동법이 폐지되자 선혜청은 철폐되었는데, 남부훈도방(현 숭례문 안쪽 남대문시장 사이 남창동)에 자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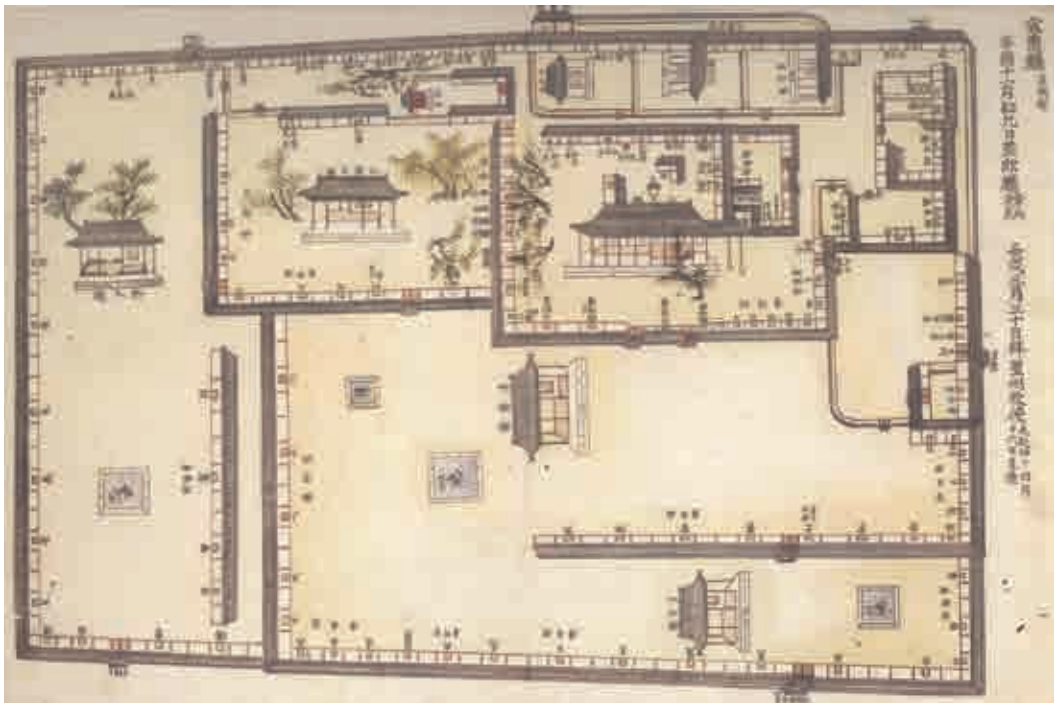
선혜청은 18세기 후반이후 진휼청과 균역청 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세입과 지출이 호조를 능가하는 기관이 되었다. 지방별로 강원청, 영남청, 호서청, 호남청 등의 건물이 보이고 업무별로 균역청, 계사청 등의 관아가 보인다. 선혜청에는 창고가 많아서 호서청에는 天, 地, 玄, 黃 등의 번호를 붙였고, 강원청에는 一, 二, 三, 四 등의 번호를 붙였다(김선주 외, 2012: 43).

토지이용을 보면 서쪽이 약간 좁은 장방형 부지에 창고를 겸한 담장을 두르고, 그 안에 이중으로 창고를 겸한 담장을 두른 상대청, 강원대청, 영남청, 균역청 등이 영역성을 달리한다. 너른 앞마당을 두고, 청향각, 하대청, 신대청에는 방형 못(3개소)이 도입되었는데, 대동미의 출납, 유지관리의 편이성, 방화 목적 등을 감안한 결과이다(그림 10참조).

특히, 중심부에 청향각(淸香閣)이 자리하는데, 뜰에는 커다란 우물이 있고 연이 심어진 정방형 못이 꾸며졌다. 여기에서 청향(淸香)은 송나라 유학자 주돈이(1017~1073)의 시애련설(愛蓮說) '향원익청(香遠益淸)'에서 유래하는데, 즉, "군자(또는 관원)의 덕행이 공명정대하고 오래도록 은은하게 멀리 펼쳐지는 것"을 비유한다 하겠다.

식물의 경우 중심건물(상대청) 앞뜰에 굽어진 낙엽교목이 정심수로 자리하고, 서쪽에 낙엽교목과 초화가 어우러진 뜰을 가꾸었다. 강원청의 경우 너른 뜰에 2~3그루의 버드나무와 낙엽교목이 분산되어 자리하고, 신대청 뒤뜰에도 낙엽교목이 도입되었으며, 신당 후원에는 소나무와 낙엽교목이 배후 경관식재로 가꾸어졌다.

즉, 선혜청은 낙엽교목 중심의 제한된 수종이 식재되었고, 못(3개소)과 우물(1개소)이 분산 배치되었는데, 채광과 통풍, 방화용수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하는 곡물창고로서의 특수성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너른 마당을 전면에 두고 후면부에 건물을 밀도 있게 도입하여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등 실용정(實用庭) 성격이 표출된다.



【 그림 10 】『숙천제아도』 제10도 선혜청(1862년), 하버드대 옌칭도서관 소장

5. 오위도총부의 공간구조와 조경기법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는 조선의 군사업무를 총괄하던 최고 군령기관으로, 오늘날 창경궁 명정문 남쪽의 선인문 안쪽에 자리했다. 오위는 중위〈의흥위(義興衛)〉, 좌위〈용양위(龍驤衛)〉, 우위〈호분위(虎賁衛)〉, 전위〈충좌위(忠佐衛)〉, 후위〈충무위(忠武衛)〉로 이루어지는데, 중위는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를, 전위는 평안도, 후위는 강원도와 함길도, 좌위는 충청도, 우위는 황해도를 방위하였다(http://ko.wikipedia.org/wiki).

토지이용 측면에서 오위도총부는 네모꼴 부지에 당상대청, 낭청직소, 그리고 사령방과 서리청 등 군무시설 건물들이 폐쇄적으로 연접된 공간구조를 보여준다. 장방형 부지 중심부에 건물이 별도의 영역을 형성하며 일(日)자 형을 이루는 구조이며, 'ㄱ' 형태로 진입동선 체계를 형성하는 등 보안기능의 강화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중정형태의 안마당을 둔 당상대청에는 십선루(十仙樓)를 두었고, 안마당 중앙을 관통하는 답도(踏道)가 도입되었으며, 뒤뜰에는 초화를 가꾸었다(그림 11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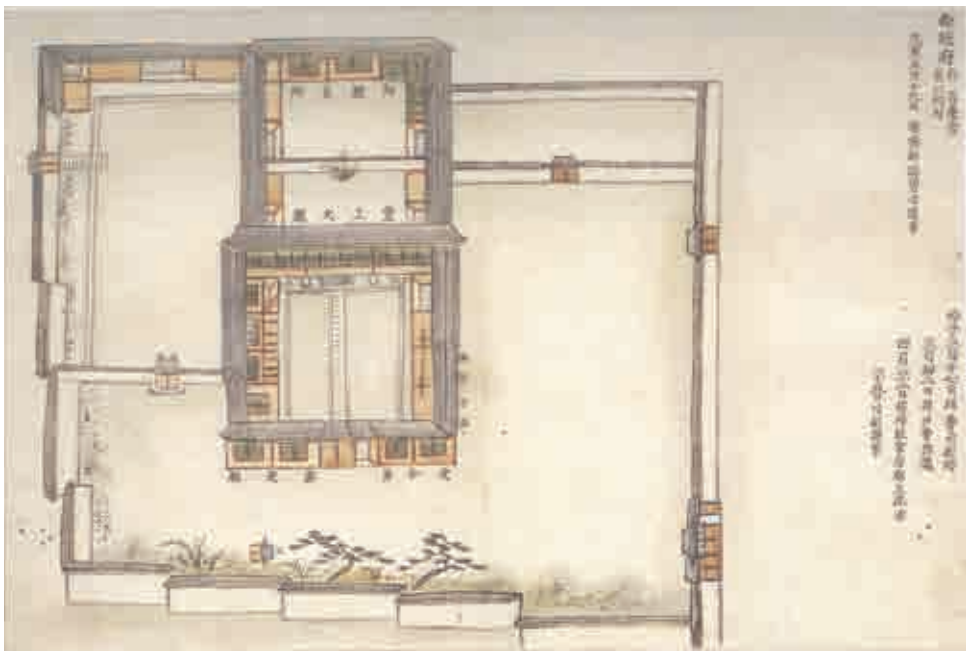
남쪽과 서쪽이 약간 높은 지형조건인데, 표고차를 조정하기 위해 석단을 놓았고 구획된 담장 안에 크고 작은 마당을 영역화 하여 비워두었다. 전체적으로 군사, 보안, 경계기능 등 공간성격에 부합되게 담장 변에 소나무 2그루와 초화류 등을 가꾸었을 뿐 별도의 수경시설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측간은 상록수(소나무)와 관목 등의 차폐식재 양상이 표출된다.

즉, 오위도총부는 군사보안시설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환경설계 사례인데, 연못과 같은 수경시설이 제외된 너른 마당 중심의 절제된 조경법이 특징적으로 표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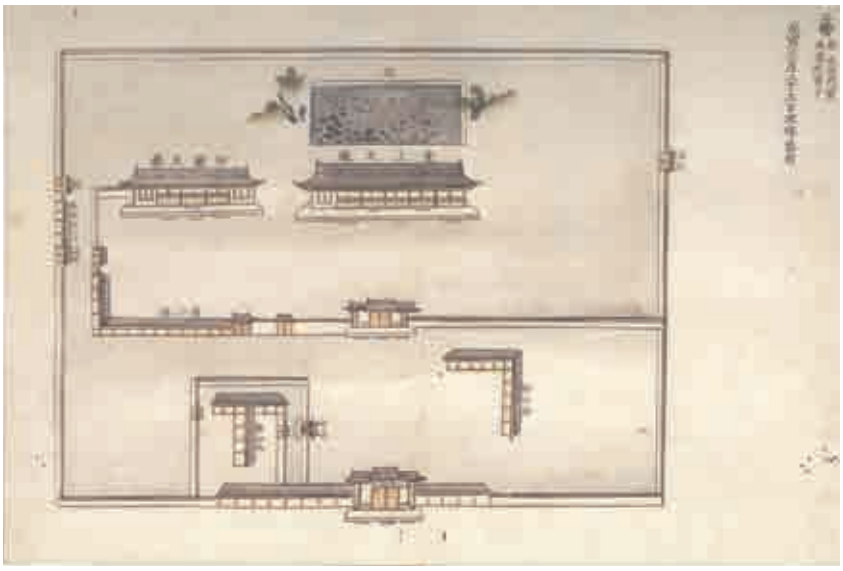
6. 공조의 공간구조와 조경기법

공조(工曹)는 국가의 토목공사, 공예품과 도량형의 제작, 산림과 소택, 교통 등을 관장한 기관으로 오늘날 광화문 앞 서편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위치했다. 공간적으로 공조는 소속 담당 부서가 지역에 분산되어 있었으므로 당상과 낭청, 그리고 사령방과 서리청, 창고 등 단순한 구성이다.

공간체계는 장방형 부지를 남북으로 분절시킨 2원화 구



【 그림 11 】『숙천제아도』 제14도 도총부(1878년), 하버드대 옌칭도서관 소장



【 그림 12 】『숙천제아도』 제15도 공조(1878년), 하버드대 옌칭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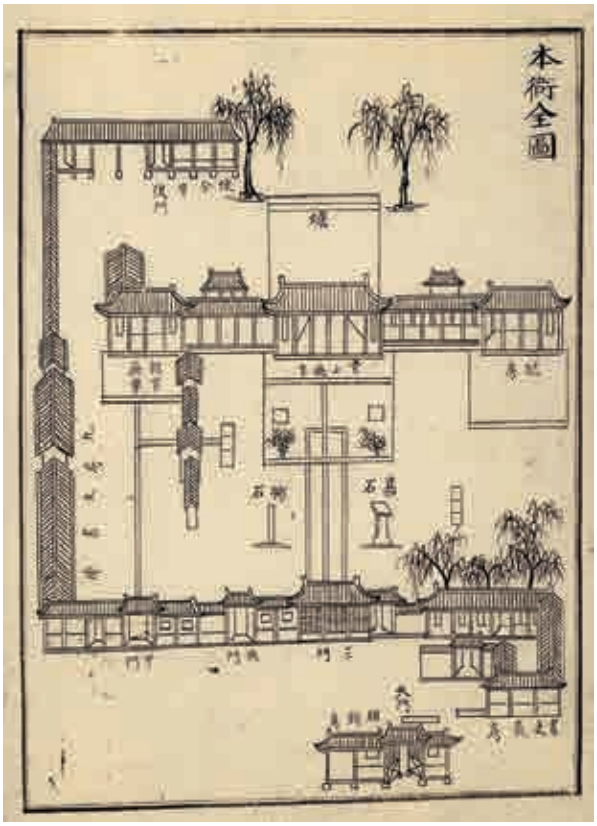
조인데, 담장을 두른 공간 남쪽에는 서리청과 사령청을 두어 앞마당과 뒷마당을 가꾸었고, 북쪽 후면에는 당상대청과 낭청대청을 두어 위계를 반영한 너른 앞마당과 수경시설을 마련했다(그림 12참조).

건물의 전후좌우 외부공간을 마당으로 활용하였고, 후원에 연꽃을 도입한 너른 못을 두었는데, 몇 그루의 버드나무를 심었을 뿐 별도의 수식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여타 중앙관아의 공간구성과 유사한 보편성으로 공무집행 차원의 기능성을 고려한 결과라 하겠다.

당상대청 후원에 도입된 연못은 정면 6칸 크기의 비교적 커다란 규모이다. 연못에는 수심양성의 상징 식물로 도입된 연(蓮)이 그려졌는데, 연잎에 떨어지는 빗소리 경관의 청차(聽借)효과, 수경관의 심미적 감상, 미기후 조절 같은 환경쾌적성 제고 차원의 환경설계기법임을 알 수 있다.

7. 형조 및 의금부의 공간구조와 조경기법

한편, 공조와 병조 사이에 위치하였던 형조(刑曹)의 공간구성과 시설배치는 '본아전도' 추관지에서 추적할 수 있다. 형조는 국가의 사법 및 형벌과 관련하여 형벌의 결정, 중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복심, 죄수와 노예의 관리 등을 맡았다. 공간적으로 서리장방 등 부속채가 전면에 돌출되고, 삼문과 당상대청이 중심축으로 설정되었다. 낭관청사와 아방, 사령방 등이 좌우로 연접하며 별다른 수식 없이 실용적 토지이용



【 그림 13 】'본아전도' 추관지(1781) 형조, 규장각 소장

【 그림 14 】'금오계첩(의금부)', 19세기초, 고려대박물관 소장

이 이루어졌고, 당상대청 뒤뜰에 가꾸어진 네모꼴 연못(塘) 등의 조경요소를 보여준다. 넓은 월대를 둔 당상대청 앞마당 중앙에는 답도(踏道)를 부설했고, 좌우에 중죄인을 다스린 가석(嘉石)과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폐석(肺石)을 두었다. 조경요소는 당상대청 후원에 버드나무 2그루가 어우러진 네모꼴 못(塘)을 가꾸었고, 동쪽 서리장방 건물 북편에 버드나무 4~5주 군식 등 단순한 조경법이 표출된다(그림 13참조).

또한, 금오계첩(金吾契帖,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금부(현 서울 종로구 종각4거리 제일은행)의 경우도 너른 앞마당과 버드나무 중심의 간소한 식물도입, 그리고 네모꼴 연지(蓮池) 중심의 후원조성 등 여타 중앙관아와 비슷한 조경 사례를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숙천제아도』에 수록된 중앙관아(제용감, 호조, 사복시, 선혜청, 오위도총부, 공조 등)를 대상으로 토지이용 관련 주요 건물과 조경요소 등을 고찰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결론

조선후기 문신인 한필교(1807~1878)의 사환이력을 기록한 화첩 『숙천제아도』에 수록된 중앙관아의 공간구조와 조경기법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방전도묘법(마당을 중심으로 건물과 조경요소 등을 사방 펼쳐 그린 배치도 형태의 기록화)으로 그려진 『숙천제아도』는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관아의 공간구조, 그리고 건축과 조경기법 등 문화경관 특성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2. 광화문 밖 육조거리에 이조(天官), 호조(地官), 예조(春官), 병조(夏官), 형조(秋官), 공조(冬官)의 서열(天地春夏秋冬)에 따라 배치된 중앙관아는 장방형 부지에 정청(당상대청)을 중심으로 부속 건물이 분산되는 구조이다. 주 건물은 축선을 활용하여 남향으로 자리 잡았고, 공무집행 차원의 영역성과 실용적 가치를 고려하였다. 특히, 신분에 따른 위계적 토지이용과 유교적 통치이념에 따른 성리학적 사유 등이 접목된 공간질서체계를 보여준다.

【 표 3 】중앙관아의 주요 건물과 조경요소

관 아	위 치	주요 기능	주요 건물	주요 조경요소
제용감(濟用監)	중부수진방, 현 종로구청	궁중에 필요한 직물 염색, 직조	당상대청, 낭청, 장방, 역인방, 공인방, 신당 등	方池, 方池, 方池圓島, 槐, 柳, 松, 花木類
호조(戶曹)	중부징청방, 현 전기통신공사	호구, 공부, 재화 등의 정무	당상대청, 낭청대청, 지부아문, 도지남문	蓮亭, 方池, 井, 槐, 柳, 蓮
사복시(司僕寺)	중부수진방, 현 수송동 대림빌딩	궁중의 말, 가마, 목장 등의 관할	열청헌, 동고, 서고, 남고, 덕응방, 신당 등	方池, 井, 井, 花階, 槐, 柳, 蓮, 花木類 등
선혜청(宣惠廳)	남부훈도방, 현 남창동 남대문시장	대동미, 포전의 출납	상대청, 강원대청, 영남청, 균역청, 청향각 등	淸香閣, 方池, 方池, 方池, 井, 槐, 柳, 松 등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창덕궁 선인문안	중앙군인 오위의 지휘, 감독	당상대청, 낭청직소	松, 花木類
공조(工曹)	광화문 육조거리, 현 세종문화회관	산림, 소택, 공장, 건축 등 공무	당상대청, 낭청대청, 서리청, 사령방 등	方池, 柳, 蓮

3. 중앙관아는 북두칠성(황제의 수레)을 둘러싼 별들의 풍정과 같다 하여 신도8경의 제3경〈열서성공(列署星拱)〉으로 제영되었는데, 주요건물은 의식수행과 공무집행, 동선 연결 같은 실용성 위주의 중정(中庭)을 가꾸었다. 특히, 상징적 의미와 절제미가 대입된 연못(方池), 그리고 후원의 조성 등 건축공간과 조경공간이 결합되는 중용적 공간구성체계가 추출된다.

4. 양거(陽居)의 가치와 수심양성의 윤리관을 대입시킨 식물소재(버드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또는 회화나무, 연꽃 등), 환경 쾌적성을 간결하게 결합한 연못(池塘)과 누정 등 절제된 조경법이 작용되었다. 특히, 위계가 높은 당상대청은 실용성 위주의 앞마당(前庭), 그리고 환경적 측면과 경관미학이 강조된 뒤뜰(後園)의 조성 등 외부공간의 확장성(動+靜)이 표출된다.

이러한 위계적 공간질서체계, 성리학적 사유가 접목된 정심수(庭心樹), 그리고 경직의방(敬直義方)의 가치를 연계시킨 방지(方池), 전정(前庭)과 후원(後園)의 확장성 등 조경기법은 한국의 궁궐, 서원과 향교, 상류주택에서도 추출되는 환경설계원칙의 보편성이라 하겠다.

특히, 본 논문은 조선시대 중앙관아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구 성격이 강하지만, 건축과 조경학 등 영역에서 접근한 최초의 논문 성과라는데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참고문헌

- 권내현, 1998, 「조선후기 읍치와 그 거주민 구성에 관한 일고찰」 『한국사학보』 3권, pp.345~346.
- 권영걸, 2006, 『한중일의 공간조영』, 도서출판 국제
- 김용기, 이창환, 최종희, 1998, 「조선시대 감영의 입지와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7(2)
- 김종영, 1989, 『조선시대 관아건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규, 2007, 「조선시대의 지방도시 읍치의 성립과 계획원리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통권 51호
- 김기덕, 2004, 「조선후기 지방관아건축의 배치구성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통권 37호
- 김선주, 허경진, 송인호, 박정혜, 2012, 『숙천제아도』, 민속원
- 박정혜, 2012, 「19세기 경화세족의 사환기록과 숙천제아도」 『숙천제아도』, 민속원, pp.106~109.
- 송인호, 2002, 「사방전도묘법 연구」 『건축역사연구』 통권 31호
- 안대회, 2007, 「조선후기 사대부의 집과 삶의 기록」 『한문학보』 제17집
- 안대회, 2005, 『산수 간에 집을 짓고』, 돌베게
- 유득공 저, 이석호 역, 1977, 『경도잡지』, 을유문화사
- 유홍준, 2013,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 3』, 눌와
- 윤국병, 1985, 「고구려 안학궁 정원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4(1), p.328.
- 윤장섭, 1990, 『한국건축사론』, 기문당
- 이선, 2006, 『한국전통조경식재』, 수류산방중심
- 주남철, 2009, 『한국의 정원』, 고려대학교 출판부, p.183.
- 주남철, 1984, 「관아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8(116), pp.30~31.
- 한국전통조경학회, 2009, 『동양조경문화사』, 도서출판 대가
- 허경진, 김선주, 2012, 『숙천제아도』, 민속원
- 허경진, 2000, 「숙천제아도」 『미술사 논단』, 제11권
- 황상돈, 박찬용, 1999, 「조선시대 읍성의 관아정원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7(3), pp.53~54.
- '92IFLA 한국조직위원회, 1992, 『한국전통조경』, 도서출판 조경
- 민속원 : http://www.minsokwon.com/news/news_read.asp?no=104
- 조선왕조실록 : http://sillok.history.go.kr/intro/intro_info.jsp
- 천지일보 : http://www.newscj.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22812
-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 종합 DB :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
- http://blog.daum.net/aroma-may/8658129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nass&logNo=40159927921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Contents?contents_id=E0004930
- http://www.cnews.co.kr/uhtml/print.jsp?idxno
-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
- http://www.jongno.go.kr/Tour.do?menuId=2082&menuNo=2082
- http://www.museum.seoul.kr/exh2/gwanghwamun/html/content
- http://organon.tistory.com/669
- http://ko.wikipedia.org/wiki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7. No. 3, September 2014, pp.42~59.*
Copyright©2014,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 Study on the Spatial Structure and landscape techniques of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中央官衙) reviewed through the 'Sukchunjeado(宿踐諸衙圖)'

Shin Sang-sup[a] · Kim Hyun-wuk[a] · Park Young-kwan[b]

[a]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b] Graduated School, Woosuk University

Abstract

Han Pilgyo (1807~1878) was a scholar-official in the later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The research results on spatial structure and landscape techniques of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 reviewed through the Sukcheonjeado(宿踐諸衙圖) album collection edited by Han Pilgyo are as follows.

First, Sukcheonjeado(宿踐諸衙圖) using Sabangjeondomyobeob(四方顚倒描法, a Korean traditional drawing type) is uniquely proven historical data which helps to understand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center and local government offic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landscape.

Secondly,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 located in Yookcho(六曹) Street which is the outside Gwanghwamun(光化門) of the Main Palace(Gyeongbokgung, 景福宮) of the Joseon Dynasty has a center facility(Dangsangdaecheong, 堂上大廳) and attached buildings which are distributed from high to low or from left to right, according to its order of presidency in square-shaped portion of land. The main building was located facing south and by considering the administrative convenience, the environmental effect and the practice of Confucian norms this structure reflects a hierarchical land-use system.

Thirdly, the main buildings such as Dangsangdaecheong and Hyangcheong(鄕廳), which are the working place for government officials had large square front yards for constructing a practical patio garden. The back garden was tended to reflect the meaning landscape, with such as pond and pavilion. A particular point was the repeated crossing of active space and passive space(movement and stillness, building and yard, yard and garden), which implements the Yin-Yang principle.

Fourth, the characteristics that can be extract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 landscapes are ① expandability of outdoor space, connects of front gardens, emphasizes the characteristic of serviceable gardens and back gardens, which in turn emphasizes scenic sides, ② introduction of water features(square-shaped ponds) that can be used as fire-water and considers environmental-amenity and landscape characteristics, ③ introduction of pavilions for relaxation, mental and physical discipline, and the development of back gardens, ④ significance of Jeongsimsoo(庭心樹) in such things as selection of concise landscape plants like lotus, willow, pine, zelkova and so on, and limited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7. No. 3, September 2014, pp.42~59.*
Copyright©2014,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plant introduction, ⑤ environmental design techniques which set importance on not only aesthetics and ideality but also practical value.

Thus, these aspects of the government office landscape can be said to be the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of Korean traditional landscape technique and can be extracted similarly in the palaces, temples, lecture halls, and houses of the upper class of the Joseon Dynasty.

Key Words Sukcheonjeado(宿踐諸衙圖), Spatial Structure, Central Government Office, Landscape Technique, Meaning Landscape, Environmental Design

Received : 2014. 02. 25 I Revised : 2014. 04. 16 I Accepted : 2014. 08. 02